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자동차보험 제도 및 환경 개선방안 마련

□ 금감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한 데 이어, 관련 제도 및 환경 개선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·추진하기로 함.

○ 자동차보험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손해율 안정을 위한 보험업계의 자구노력이 먼저 이행된 후, 보험료 인상 여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임.

□ 감독당국 및 보험업계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보험원가 절감 및 기반 조성,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,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보험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함.

○ 손보사의 보험원가 절감 대책으로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형대리점의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, 소액 물적사고 심사 및 보험금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.

○ 또한 단순 나열식의 현행 사업비 비교공시는 판매비 항목을 세분화하여 회사·항목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여 공시양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함.

○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는 불합리한 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*하고 보험료 조정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하며,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임.

○ 외부 환경 개선으로는 의료업계 등 연관 산업과의 상호신뢰 구축, 정비·의료수가 합리적 개선, 허위·부당청구 업체의 관리·감독 강화, 선진교통 환경·의식 조성 등이 있음.

* 신호·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건이 할증대상에서 제외돼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법규위반 경력 효율을 개선하고, 가해자 불명사고 발생 횟수에 비례하여 사고점수를 차등 부과하는 물적사고 할증으로 개선

□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,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과 관련한 T/F팀을 운영하여 세부시행 방안을 수립·추진하고, 환경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·점검해 나갈 방침임.

(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마련·추진,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, 3/24)